事業成果의 内実·極大化에 最善

韓国科学技術団体総聯合会篇

閔 寬 植 会長

◇ 総括

民主·福祉·正義社会 구현을 理想으로 내건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科学技術人의 총본산으로서의 韓国科学技術団体総聯合会는 금년에 그 설립목적을 사업성과면에서 高揚하는데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 국내 및 在外 科学技術団体와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단합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창달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 과학기술자의 지위향상과 학술진흥의 풍토조성 및 그 지원에 力点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

80年代의 관문에서 科総은 科学技術의 発展, 科学立国이라는 국가적 命題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① 과학기술진흥시책 연구사업과 ② 새마을기술봉사단활동 지원사업 ③학술학회활동 지원및 조성사업 ④82년도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⑤ 국민생활 과학화추진사업 ⑥ 국제협력및 과학기술정보 교환사업 ⑦ 과학기술문헌 편찬사업 ⑧ 회원단체간의 협력촉진사업 등에 걸쳐 현실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수반하는 각종 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왔다.

科総의 이러한 사업들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각부문의 급변하는 환경에 과학기술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오로지 과학기술의 진흥, 발전만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인의 意志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 科学技術政策조사연구

작년에 총25개에 달하는 国家研究課題를 범과학기술 및 산업계의 총의로 도출한바 있는 科総은 금년에 이의 실제적인 도달목표와 추진전략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자원개발과 식량문제 등의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관계전문가들과 추진하고 있다.

科総은 특히 산하에 있는 각종 상설위원회의 조사, 연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역점을 두고 여기서 검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발전책을 제시해왔다.

올해에도 防災科学과 国民住宅문제연구 위원회를 운영한바 있는데 防災科学연구 위원회는 81년도의 재해현상과 이의 향후대책을 협의하는 좌담회를, 국민주택문제연구위원회는 주택문제 연구과제 목록집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国民生活 科学化추진

그동안 국민생활의 科学化운동을 합리적 국민생활과 새마을운동 기본이념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꼽고 이를 운영해온 科総은 금년에 科学의 大衆化캠페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또 과학기술진흥시책의 구체

적인 자료를 모색하기 위한 說問書조사를 실시했다. 과학기술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연내에 종합정리, 분석되어 관계 사업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에 創刊된 季刊誌 "과학마을"은 每号마다 1萬部를 발간, 전국의 자연부락에 배포했는 데 현재 제4호를 기록하고있다. 작물재배기술과 과학생활의 실천면을 농민들이 알기쉽게 풀이한 내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한편 새마을운동의 현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인력을 전문분야별로 참여시켜 현지실정에 적합한 과학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 영농의 과학화,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科総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 기술봉사단활동사업은 금년에 전국 300 개 마을과 기술결연을 맺고, 현지기술지도 236회, 書信문의지도 177회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매스콤의 농어촌시간 및 관계보도를 통해 총 454회의 기술지도도 실시했는데 특히 11월에는 忠南大田에서 제6회 전국새마을기술지도 事例発表会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사례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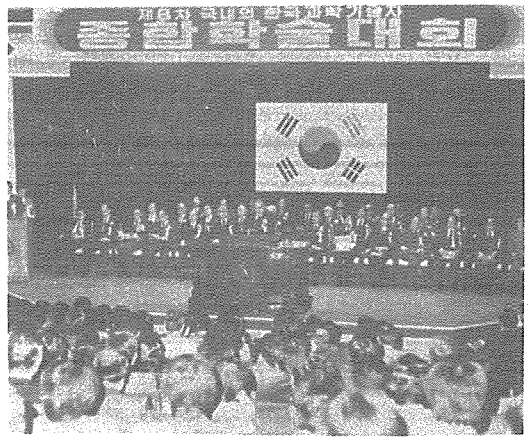
금년의 새마을기술봉사활동의 특색은 각도별로 풍토에 맞는 경제작물을 선택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촛점을 둔 주산단지조성지도와 특수단지조성지도 등을 특기할수 있다.

또한 11월27일에는 科総이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창의성의 진작을 위해 올해로 3회째인 科学化模範事例발표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는 전국에서 총 117편의 과학화사례가 접수되어 이중에서 우수사례 6편이 발표되었는데 입상자 전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상의 두 사례발표회에서 입선한 우수사례들은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배포됐다. 이밖에도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산하 회원단체는 각종 기념학술발표회를 가졌다.

◇国内外韓国科学技術者 綜合학술대회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간의 학술연구발표와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科学立国의 성공적 촉진을 뒷받침하고 재외 한국과학기술자들로 하여금 조국의 산업발전상을 비롯, 연구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발전실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둔 이 종합학술대회는 금년으로 8회째를 기록하였다.

제8차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는 4월6일부터 16일까지 韓国科学技術院에서 科総과 在欧한국과학기술자 연합회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그 규모나 실적면에서 범국가적인 학술제전으로 학계와 국민사이에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특히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단순한 학술대회 이상의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科総내에 설치된「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협력위원회」를 통해 在外 한국과학기술자의 취업 및 자문희망자의 名単을 각계에 배포하고 국내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업체에서 접수된 유치신청 현황을 在外 과학기술자협회에 통보하는 등 상호 유기적 창구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개분과에서 9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국내학계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学会의 학술활동 支援확대

한국의 기초과학과 순수学会의 육성지원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科総의 올해 学会活動조성사업은 작년의 1억7백만원에 비해 약5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国庫1억, 産学協同재단 6천3백)

科総은 学会학술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산하 123개 학회(국고지원84학회, 산학 39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의 学会誌 발간은 84학회가 136회를, 학술발표회는 94회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14개학회의 国際분담금도 지원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문의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보교환사업을 위해서 科総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世界기술단체연합회(WFEO), 美国과학진흥협회(AAAS), 太平洋과학협회(PAS), 東南亜太平洋지역공학단체연맹등으로부터 각종 학술정보자료를 접수, 관련 학회에 제공했다.

지난 11월호로 통권제150호를 기록한 국내유일의 종합과학기술전문지인 「과학과기술」誌는 올해에도 더욱 편집을 다양화하여 독자들의 관심속에 애독되고 있다.

국내외 과학기술에 관한 最新情報와 해설, 생활과학 및 과학기술계의 연구활동사항과 산업기술의 발전동향등을 깊이있게 보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및 국민생활 과학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誌는 앞으로 더욱 유익한 기사와 자료를 게재할 것이다.

◇科学技術文献편찬

작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정을 체계화, 집대성한「韓国科学技術30年史」를 발간한 바 있는 科総은 올해, 그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用語의 辞典편찬을 위해 기초과학분야중 地質, 海洋, 数学분야의 총 7,200用語에 대한 해설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1978년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기초과학편 용어에 대한 해설작업을 일단 마무리 하여 82년도에는 수학, 물리, 화학등 3개분야의 과학기술용어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된 科学技術人名사전 편찬사업은 현재 8,031명에 대한 자료를 접수했는데 내년중 자료정리와 사전편찬이 이루어지면 국내 과학기술계의 인력을 적절히 파악, 과학기술 및 기능두뇌의 원활한 수급과 유대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科学技術진흥을 위한 건의

科総은 1백만 과학기술인의 단합을 통한 구심체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년도에 科技処와 行政改革委員会에 각각 科総의 활동을 지원, 육성해 줄 수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科総은 이상과 같은 81年度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과학기술계의 발전 향상을 뒷받침하는 内実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移 転 案 内

韓国新聞編輯人協会 事務局을 아래와 같이 移転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場 所 : 서울特別市 中区 中林洞 441番地 (韓国経済新聞 別館 4層)

電話 : 777 – 1722